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계속 되는 영적 전쟁

(에 3:1-6)

The Spiritual War continues

(Esth. 3:1-6)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이 있기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노예였고 고아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모르드개는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중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힌 사건으로 그들의 고난은 시작됩니다(1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2절).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모르드개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전쟁을 걸어온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출 17:16)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개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원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하만은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5-6절). 이것은 사람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요 역사의 싸움이며 더 나아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 하는 사탄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린아이나 여자들과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악은 그 그림자도 남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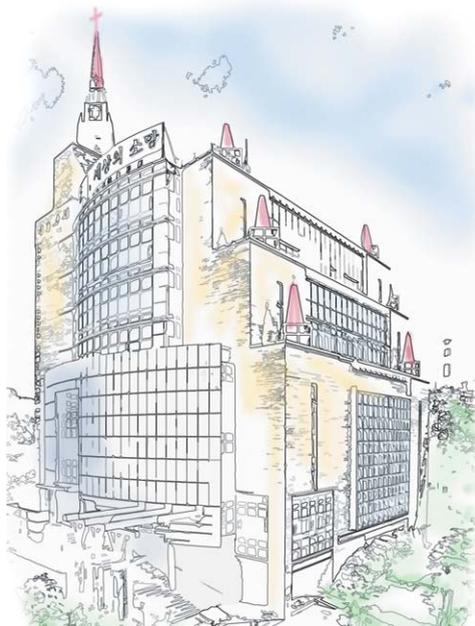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남은 악의 씨가 결국 우리 후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t will be great to see only the good things happen every day in this world. But, as much there happen the good things, situations that are hard and difficult to deal with challenge us daily. Yet, because of such a dichotomous existence of things that happen around us, we must prepare ourselves spiritually. Only those who are prepared can earn the victory in the world.

Esther who was an orphan, also slave, became a queen of the Great Persian Empire, and Mordecai became a high ranking official. Even to powerful people like them, unimaginable hardship came near. Their challenge began with king Xerxes' assigning Haman, the Agagite, to a higher, important position (v. 1)."

All the royal officials at the king's gate knelt down and paid Haman honor, for the king had commanded this concerning him. But Mordecai would not kneel down or pay him honor"(v. 2).

When all the other officials knelt down to Haman and paid him honor, Mordecai, in spite of king's command, did not kneel down nor did he pay him honor. It was because Haman was a descendant of King Amalekite, the Agagites. When the Israelites escaped from Egypt, the Amalekites started a fight, obstructing the path of Israelites.

"For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The Lord will be at the war against the Amalekit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Gen. 17:16), The Amalekites had been an enemy of God before they were an enemy of the Israelites. That's why Mordecai never intended to kneel down before an enemy of God, by saying 'if I perish, I perish'.

Haman who received this report planned to kill all the Jews because he was not satisfied with the idea of killing only Mordecai (vv. 5-6). This was not an emotional battle between people but rather a historical battle, and, in a broader sense, a spiritual one.

Now, there are Christians who try to carry out God's will, obeying his command, while there exist the Satan's disciples that try to defeat God's will. This spiritual battle will continue until Jesus Christ comes again and declare His final victory.

God commanded that king Saul to annihilate all the Amalekites, including children, women, and even domestic animals. It implies a complete elimination of evil, even the smallest traces of its shadow.

My beloved Christians!

When we obey God's word, we must completely obey it. If not, the remaining seed of evil will sprout, and, in the end, it will affect our children. Mordecai completely obeyed God's word. By completely obeying God's word like Mordecai,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experience His salvation, recovery, and reviva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2월 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 장학금 수여식: 2월 3일(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6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브리스길라 장학생>-2명-허승일 박다형
- <송암장학생>-26명- 김재은 박수영 김현지 김수경 이다솜 김민태 정상준 이예원 최규리 박연정 박유란 최서원 이한나 김휘 나인영 김혜진 이성화 김연진 신미령 박하나 이윤재 박서정 안시내 임하나 권소현 조인주
- <디아스포라부>-7명- 홍정원 권영숙 홍지아 김혜경 유수정 이영화 박춘희
- <고등부>-1명-김세찬
- <교역자, 선교사 자녀>-7명- 서윤영 정휘준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더 김하은 조라빈
-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3명- 최미리 문병훈 노다운

요람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27일(주) 704호에서

교회는 요람 제작을 위해 27일(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704호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바란다. 대상은 교적부에 사진이 없는 서리집사 등 직분자들이며 기존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성도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이 힘든 성도들은 사진을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이메일(cyc@seoulchurch.or.kr)로 보내주기 바란다.

2월 학습세례문답 안내

2월 학습세례문답이 2월 3일(주) 오후 2시 602호에서 실시된다.

가족찬양예배

매달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시

새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찬양예배로 드린다. 교회는 이 예배 시간을 매우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박노철 담임목사는 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설교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 즐거운 찬양과 말씀에 도전 받는 가족찬양예배를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린다.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1월 30일(수) 수요일부예배 후 / 본당

그동안 한 달간 방학하였던 다락방 리더훈련을 1월 30일(수) 수요일부예배 후 본당에서 개강하며 금주부터 다락방 모임을 다시 갖는다.

천국시민양성 - 새가족부

새가족부가 VIP(새가족)를 위하여 새롭게 변합니다



김금준 집사(새가족부 부림)

지난해 사망자대회를 계기로 성도들의 VIP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VIP분들의 효과적인 서울교회 정착을 위한 직분자 필수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이 변동됩니다. 특히 학습·세례식이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따뜻한 축복과 격려 가운데 진행되도록, 금년부터 주일 1,2,3부 예배시에 실시됩니다. 금년 첫 학습·세례식은 2월 셋째 주일(2월 17일)에 실시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가족부의 모든 교사들은 서울교회에 등록하신 VIP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분도 낙오 없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주중 전화심방 및 주일 섬김봉사와 더불어 새가족부 수수료 후 다음 부서로의 안내 등 VIP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아래의 변동사항을 잘 숙지하여 VIP 초대시 착오 없도록 하시고 또한 위와 같이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VIP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비고
양육반(602호)	1, 2부 운영	1부 : 양육반(2부 1부 통합, 4주) 2부 : 직분자 필수반(신설, 4주)	통합 및 신설
학습·세례 준비반(607호)	1, 2부 운영	1부 : 학습 준비반(4주) 2부 : 세례 준비반(8주)	분리
	통신반	통신반	동일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5]

(문 74) 여호수아 10:12-14에 태양이 머물고, 길어진 날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 : 여호수아에서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전투에서 날의 길이를 연장한 것만큼 주목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의 회전이 멈추게 된 것이고 천체의 모든 운행이 정지되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당시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은 4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시적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닌 느낌이나 시적 표현이었다면 당시 우박의 기적도 시적 표현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일광시간을 길게 연장 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광시간이 여름과 겨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광시간을 조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능하심을 무시한 합리적 해석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법적 이해를 하자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긴 날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 낮 시간에 비취는 뜨거운 열로부터 구해 줄 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dom'이라는 동사는 머물다, 조용하다, 쉬다, 그치다로 번역되는데 작렬하는 태양 별 아래서는 전투를 할 수 없으니 태양 별을 멈춰 달라 기도함으로 우박을 내려 주시고 반나절 동안에 힘을 얻어 온종일 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넷째, 13절 말씀에 의하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해가 움직이는 것을 지연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상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24시간보다 48시간 후 자전이 시작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Harry Rimmer에 의하면 완전한 하루가 천문학적 계산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Rimmer는 하버드 관측소에서 이것이 여호수아 때의 것으로 추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일의 Totten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Grand Rapids : Eerdmans, 1954, p.159)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태양도 달도 머물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신앙을 배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여호수아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음주 계속)

비전2020운동을 후원하며

비전2020운동 후원자 서명에 적극 동참을!



최임수 집사
(비전2020운동 총괄팀장)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혹한의 날씨를 이겨가며 전후방 각지에서 수고하는 60만의 국군 장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비전2020운동은 2020년까지 매년 20만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우리 민족의 75%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비전이자, 대한민국 백성에게만 주어진 세계유일의 특별한 선교비전입니다. 이 특별한 선교운동의 중심에 우리 서울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복음전도의 지상명령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후원(1구좌 5,000원)이 예수님을 모르는 젊은 병사의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됩

니다. 우리 교회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육군3사단, 20사단, 23사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여섯 분의 민간 목사님들을 군선교사로 파송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해에도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958명의 장병들에게 진중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비전 2020운동 후원자의 밤 행사에 믿음의 장병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특별한 선교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선교, 저 선교, 다 좋은 선교이나 그 중에 제일은 군 선교입니다.”

* 후원서는 1층과 8층에 후원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비전2020 운동 후원자의 밤'에 참석한 군장병들과 관계자들



특별찬양을 담당한 해병대 군악대



격려사를 하는 박조철 목사



이갑진 장로

한가정 한선교사를 후원하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송영희 집사(4교구)

가슴 설레며 하나님을 알게된 양화진 선교지에서 첫 믿음 첫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구한말 암흑기와 일본강점기에 이방인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나누며 복음이라는 큰 틀을 남기심에 한국 교회의 부흥이 더하여져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에 힘입어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방인을 사랑하심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전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겪은 일 중 하나가 생각합니다. 헌당식에 외출복으로 입고 온 어린이들의 누렇게 변한 형태 없는 옷, 새색시가 여기저기 구멍 난 옷을 입고서도 수줍은 미소 사이로 주님을 영접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호의호식하며 내 가족 내 주위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세계 선교에 나선 선교사님들께서 주님의 지상 대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온갖 역경을 헤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국땅 저 멀리서 많은 민족들을 위해 영혼 구원하시는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다 보고 알기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랑과 온 마음을 담아 기도와 물질 후원이라는 섬기는 손길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며 다 행복해질 때, 그 이후는 하나님이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늘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리 교회 선교사역지인 인도 어린이들
(야) 케냐의 웬다니 하미니 음악학교



청년부 수련회 초대

오세광 목사(청년2부지도)

So One 소원



2013년 드디어 서울교회에 역사적인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교육 부서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부서별 자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1월 13일 첫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청년1,2,3부도 그렇게 첫 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젊은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위해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축복이고 또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을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젊은이 사역의 부흥과 성장과 훈련을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는 저희 청년1,2,3부가 연합으로 함께 모여 젊은이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마음껏 누리고자 합니다.

“So One(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또한 주일 젊은이 예배까지 수련회의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서울교회 청년들이여! 이번 겨울 수련회에 함께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교회 청년들에게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품고 신나게 젊음의 때를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지영 (고등부 회장)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중에 마치고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할렐루야!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고등부가 겨울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조금은 두려운 수련회였습니다. 평소보다 2주가 앞당겨져 시간이 촉박한 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임원으로서 준비과정의 주축이 되어 맞이하는 첫 수련회였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과정에 함께 하여주셨기에 힘들다고 느꼈던 그 시기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여러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친목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 조각 힘을 모아 얻은 음식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 먹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저희 고등부는 더욱 각별하고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Offline RPG'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팀내 스파이 '골룸'을 찾기 위해 팀 모든 인원을 의심하였는데 결국 골룸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후시 내가 지금껏 이유없이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종진 목사님의 저녁집회와 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헌신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며 모두가 목놓아 회개기도 할 때에 저 또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크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고등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 고등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1,2학년 학생들과 수능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2학년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 주신 3학년 언니 오빠들 덕분에 이번 수련회가 순조롭게 잘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에 함께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이들의 빛이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등부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아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는다. 당회 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후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 각종 기록물을 1월 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또 2011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서울교회 홈페이지내에 "기록물 보관실"로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시기 바란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제출하신 자료들은 교회내 역사자료실에서 정리해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

(담당: 김민철 집사, 최영철 집사, 허숙 권사)

공 고

서울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기도 모임 등은 소수가 잠시 모이는 모임(주중 모임 포함)이라 할지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각종의 호수와 사용 소요 시간, 사용 목적을 소정의 양식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만일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방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식은 사무국에 비치 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동 정

■ 이종진 원로목사는 30일(수) 장로교 한교단다체제(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2월1일(금)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한국군선교연합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2월2일(토) 사랑의쌀 운동 기도회 설교, 울란바타르 대학이사회 설교를 한다.

■ 승진 : 13교구 김장섭 집사 NH농협은행 판교역지점장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 선교회(1.27) 베드로 선교회(2.3)

■ 금주의 식사: 이하경 성도 최희금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광용 성도 가정

(유후자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비전2020 운동 후원자

강승웅, 한승희, 황성희, 이봉선, 남현주, 최광성, 최지욱, 이상욱, 장성자, 박순근, 배은경, 박광욱, 차도훈, 남태영, 황병석, 강찬양, 노병희, 방덕자, 김용환, 김근준, 이현주, 박찬성, 심명숙, 박노철, 김은경, 박태삼, 오윤걸, 김홍찬, 권명희, 백승갑, 박길자, 조유정, 조수호, 전부일, 유경희, 이경란, 조웅기, 김혜중, 이관모, 이경구, 박미경, 노희균, 노희수, 유수열, 강요셉, 강희자, 전인화, 고석규, 한지종, 서은석, 김미성, 장정화, 이미숙, 임선영, 전봉길, 전은재, 전은주, 이계홍, 김형상, 최금숙, 김민선, 윤갑숙, 최무순, 신항범, 홍광숙, 연형준, 언지은, 김숙행, 손명근, 인계선, 임병우, 임혜림, 이관규, 이희민, 이경실, 이지은, 김대호, 박경주, 박복순, 박정인, 정을순, 강승웅, 서경애, 남영주, 정인건, 진교남, 김희옥, 이선자, 방계운, 박현미, 김정제, 유관모, 박 옥, 오민세, 임경희, 이순례, 최재호, 전배호, 정기동, 유남근, 장 덕, 임인자, 황성희, 박경호, 이승자,

김성은, 김성경, 김요한, 이갑연, 정영택, 신삼철, 이태인, 윤복순, 이영희, 바울선교회, 루디아전도회, 스테반회, 뱀뱀전도회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바울선교회 살롬권사회, 루디아전도회, 스테반회, 뱀뱀전도회, 김영주(이해순), 김장섭(최춘숙), 인계선, 배옥선, 이민희(신순자), 강낙훈(심상희), 박경주, 김동수, 황선희, 최지욱, 이상욱(장성자), 차도훈(남태영), 황병석, 문금희, 김이세(임승자), 최광성, 박찬희, 민혜정, 이호(김민애), 김원중(이갑연), 방계운, 이갑진(박우주), 이순영, 임종식(신선주), 이희민(이경실), 이우식(조봉자), 김형상(최금숙), 전봉길(임선영), 오윤걸, 김홍찬(권명희), 백승갑(박길자)

(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김치삼, 서은석(김미성), 주화인, 김일순, 고석규(한지종), 하영수, 박노철(김은경), 김관규(윤혜련), 김홍찬(권명희), 스테반회, 조웅기(이경란), 임경락(김혜중), 김형상(최금숙), 김대호(남순덕), 이희민(이경실, 이지은), 박정수(허유미, 박예진), 이민희(신순자), 이순영, 이갑진(박우주), 뱀뱀, 여전도회, 김상식(이순례), 박현미, 최광성, 박광욱, 김원중(이갑연), 유경은, 바울선교회, 루디아전도회, 김장섭(최춘숙), 인계선, 강낙훈(심상희), 박경주, 오민세(임경희), 김정제(강경수), 민혜정, 문금희, 최지욱, 황선희, 이상욱(장성자), 윤준호, 김태수(김정수), 최주하(최무진), 이지은15, 오윤걸, 최성욱, 박찬성(심명숙), 양정실(강진환), 차도훈(남태영) (다음 주 계속)

후원 봉투는 2층 새가족부실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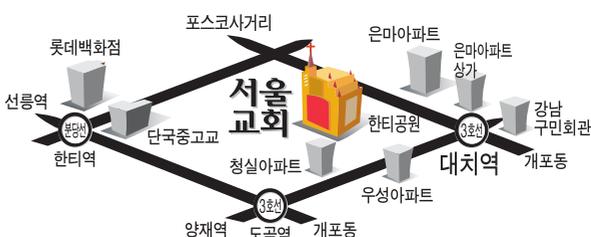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교회 장학생들이 우리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의 자랑스러운 일꾼들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2. 매달 마지막 주일에 있는 가족찬양예배에 온 가족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3. 이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청년 1부, 2부, 3부 연합 겨울수련회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부 서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701호
	II 부	오전 11시 20분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601호
	III 부	오후 2시	중등부	주일 오전 9시 501호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	101호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청년1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2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젊은이 예 배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외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